

주말부부의 거주유형에 따른 심리적 비용과 보상에 관한 연구*

The Psychological Costs and Rewards of Weekend Couples by the Type of Living Together

우석대학교 의상·주택학부 주택전공
교수 권인숙**

Woosuk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Housing Design
Professor : Kwak, In-Su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weekend couples' type of residence,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o determine their major living place. Specifically, this study dealt with the weekend couples' psychological costs and rewards when they live apart in weekday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3 married couples from 2002 June to July about their family life histor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type of living together ; husband living apart on weekdays, wife living apart on weekdays, wife and child living apart on weekdays, living multi-residence. The majority of them were the type of husband living apart on weekdays. 2) children's care and education were an important factor in a couple's decision 3) weekend couples' psychological costs were such as difficulties of children's care, very fatiguing, shortage of time, and emotional isolation. In spite of all these costs, weekend couples still maintain their separate living arrangements during the week. They felt different kind of psychological costs by the type of living together. 4) psychological rewards were professional success, self-fulfillment, plenty of time to use purposely, and weekenders' relationships to their spouses might seem better than before.

Socialization of child-care and household-labor are important factors to reduce psychological costs for the all weekend couples.

▲ 주요어(Key Words): 주말부부(weekend couple), 주거주지(major living place), 부거주지(second living place) 거주유형(type of living together) 심리적 비용(psychological costs) 심리적 보상(psychological rewards or benefit)

1. 서론

개인은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하므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시간과 공간에서의 변화와 제약에 의해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자신이 그러한 변화와 제약에 적응하거나 혹은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 특히 직장과 가정이라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일하는 여성들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삶의 실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지속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이며,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라 할 수 있다. 통계청(2001)의 조사에 의하면 1990년 기혼여성취업자의 비율이 75.5%이던 것이 2000년에는 77.8%로 증가하였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증가하는 자녀교육비 및 생활비의 증대, IMF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계 또는 노후대책과 같은 경제적 이유에 의한 것과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적인 역할수행에 대한 욕구 증대로 인한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면서 직업상의 이유로 가족이 불가피하게 별거해서 살아야 하고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주말부부도 증가되었다. 주말부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화초기에는 주로

* 본 연구는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한국가정관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권인숙 (E-mail: kwak1526@yahoo.ac.kr)

남성의 직업적인 이유로 인한 지방근무로 자녀교육을 위해 부인과 자녀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남편외유형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의 직업적 성취와 자아실현을 위한 부부왕래형의 주말부부로 초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말부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도 없고, 이들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다. 주말부부를 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분산되어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행동은 유기체가 보상을 얻고 벌을 피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비용(cost)은 하나의 행동노선을 따름으로써 치러야 하는 대가이며, 얻지 못하게 된 보상 또는 거기서 발생한 벌을 말한다. 보상(reward)은 유기체에게 만족을 주거나 유기체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극을 말한다. 인간은 대안적인 행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비용과 보상을 계산하여 행동을 선택하며, 사회적 인정 역시 보상으로서 중요하다고 호만스는 강조하고 있다(정현숙, 1997; <http://kotsh11.hihome.com/homans.htm>).

즉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주말부부가족의 경우 자녀양육의 어려움, 가정살림의 역할분담과 수행상의 어려움, 행정절차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은 이들에게 심리적 비용(cost)이며,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는다는가, 직업적 성취가 높아질 수 있는 것 등은 보상(reward)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주말부부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가족학이나 아동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주로 역할갈등이나 결혼만족도, 아동의 사회적 적응연구 등에 관한 것과(김태현·박숙자, 1992; 허영숙, 1994; 김경은·정옥분, 1998; 김은경, 2001), 인류학자인 Kim Song-Chul(2001)에 의해 수행된 주말부부의 삶에 대한 심층사례 분석한 것이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맞벌이부부나 주말부부가 일반부부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실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경제적·심리적 비용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자신들에게 얻어지는 심리적 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취업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말부부들의 문제점이 주로 지적되어 심리적 비용 측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말부부의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인 보상 측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말부부가족의 주거주지 결정으로 인해 어떤 형태의 거주를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비용과 보상이 주어지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초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주말부부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다양한 주거주지 결정 요인을 규명하고, 거주유형에 따른 심리적 비용과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심리적 비용으로서 인지되는 문제의 가능한 제도적·행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주말부부가족에 대한 연구의 시초가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 주말부부가족이 일시적인 비정상적인 가족이 아닌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주말부부의 주거주지 선택시 참고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여, 이들 가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주말부부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주말부부 가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정확한 문제점이나 주거지 결정에 대한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주말부부가족의 주거주지(主居住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유형은 ?

셋째,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유형에 따른 심리적 비용은 ?

넷째,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유형에 따른 심리적 보상은 ?

다섯째, 주말부부가족의 심리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거주지라 함은 주중에 주말부부가족 중 더 많은 수의 가족이 생활하는 곳을 의미하며, 부거주지라 함은 주중에 혼자 또는 적은 수의 가족이 생활하는 곳을 의미한다. 심리적 비용은 주거유형의 선택으로 인해 결정자가 감수해야할 경제적인 측면이외의 대가 또는 죄책감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느낌을 의미하는 것이며, 심리적 보상은 주거유형의 선택으로 인해 결정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이외의 보상으로 만족감이나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느낌을 주는 측면을 의미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주말부부가족은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며, 종적인 심층분석과 내적 요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계량적 접근보다는 질적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다. 즉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연구대상자 개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심리적 측면에서의 대가(cost)와 보상(reward)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례 선정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가능한 한 다양한 연령층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2002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2달간에 걸쳐 33명을 조사하였다. 연구자 주변의 주말부부가족과 인터넷을 통한 조사협조 등을 통해 적절한 대상을 선정하여 개방적인 질문지로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주거지 변동사항이나 주거지 결정시 고려한 사항, 주말부부로서 심리적인 비용과 보상에 관해 보충하였다. 심층면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 내용을 추가로 파악하였다.

III. 관련연구의 고찰

1. 주말부부의 탄생

기혼 여성의 전문직 취업이 증가하면서, 아내가 남편과 떨어져 주말에만 가족을 만나는 맞벌이 주말부부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가족가치 및 구조의 변화, 가족 기능의 변화 등을 유도하면서 비동거 가족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생활양식을 창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은경, 1999). 또한 취업 때문에 부부가 비동거를 택하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주말가족이 출현함으로써 가족을 정의할 때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던 동거 개념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이는 사회가 변하면서 가족은 핵가족이라는 일정한 표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형태가 불가피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공세권, 1998).

주말부부가족의 탄생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변화에 의한 것과 다른 하나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우선 사회적 변화에 의한 것은 여성의 취업증가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맞벌이 주말부부가족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경제성장에 따른 지방산업의 육성 발전으로 인해 지역간 노동력 이동이 빈번하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고 했다(김태현·박숙자, 1992; Gerstel & Gross, 1984). 또한 경제적 이유나 자녀교육문제(이기숙, 1999; Kim Song-Chul, 2001; 채옥희, 2002)를 주말부부의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꼽기도 한다. 특히 인류학자인 Kim Song-Chul(2001)은 주말부부가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라고 주장하였으며, 두 번째 이유는 자녀교육이며, 다음으로는 부인의 직업에 대한 자아충족과 점점 편리해져 가는 교통수단이 주말부부의 형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여성의 권리신장에 따라 남성 중심의 가족형태로부터의 변화 모색도 주말부부가 증가하는 한 이유가 되고 있다.

개인적 요인인 여성의 고등교육기회 증가와 자아실현 욕구(이기숙, 1999; 채옥희, 2002)는 교육수준의 향상,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현상, 개인중심의 사고와 가치관 증가 등과 더불어 맞벌이 주말부부 형성에 긍정적인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이들은 경제적인 목적이나 자녀교육, 미래에 대한 대비보다는 자신의 직업적 성취와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전문직·기술직에 취업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기혼취업여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경제여건의 변화로 실업률과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반면 취업기회는 축소되는 사회적 추세로 맞벌이 부부는 계속 증가하지만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되어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지므로 주말부부가족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주말부부가족의 내용상 변화

주말부부가족의 유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1960년대에는 이농현상이나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으로 인한 일시적 비동거 가족이 발생하였으며, 이때는 경제적인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으며, 대부분 남편외유형이었다. 1970년대에는 중동지역의 건설 붐과 독일 탄광으로의 취업과 같은 해외인력수출정책으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비동거 가족이 발생하였으며, 이때 역시 가장 주된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었다. 1980년대에는 지방산업의 활성화와 행정관청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남편은 지방에 부인과 자녀는 대도시에 남는 주말가족이 발생하였으며, 이때 역시 주된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었으며, 자녀의 양육 및 교육적 여건을 고려해 남편이 혼자 주중에 지방에서 생활하는 남편외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자녀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행정 및 교육기관이 대도시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주로 아내가 머무르고 남편이 통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비자발적인 분거 결정이었으며, 대개 남편의 직업에 의해 결정되었다(김태현·박숙자, 1992).

그러나 최근 들어 별거왕래형의 맞벌이 주말부부가 발생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것으로 개인적 만족감이 주된 동기를 이루고 있으며, 대개 전문직·기술적 직업이나 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옥경희, 1999). 이들은 자발적인 분거 결정을 내린 가족이며, 누가 이동할 것인지를 부부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었다. 이기숙(1999)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주말부부는 직업적 성취와 자아실현의 이유가 자녀교육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며,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부부가 맞벌이 주말부부가족의 생활양식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Song-Chul(2001)은 주말부부 당사자들은 지금의 주말부부 형태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말부부를 가족해체의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가족이 지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행복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말부부가족은 초기의 비자발적이며, 남편외유형에서 오늘날에는 부부왕래형으로 변화되었으며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부부 각자가 원하는 직장을 위해서 비동거를 선택한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이는 다른 비용을 치르더라도 개인의 직업적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주말부부가족의 심리적 비용과 보상

주말부부가족은 가족구성원간의 심리·정서적 유대가 약화되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되고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학문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의 애환, 외로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는 주말부부 사이트가 등장하여 여러 애로사항들을 서로 토로하기도 한다.

부모의 비동거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90%에 이르며, 부인들은 자녀 양육 및 교육 영역에 가장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김태현·박숙자, 1992), 이들의 경우 지방이나 해외 비동거 가족과 같이 1년 이상의 장기적인 비동거 가족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남편외유형으로 자신들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분거가 아닌 비자발적인 분거 결정이었던 것도 부정적인 측면을 더 크게 표현하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옥희(1998)는 자녀가 어릴수록 심리적 부적응을 걱정하며, 시가나 친정에서의 양육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옥경희(1999)는 맞벌이 주말부부의 경우 친정부모나 시부모의 거주지와 근접성은 부인의 역할갈등에 영향력이 없다고 하였다. Gerstel & Gross(1984)는 주말부부의 자녀양육 문제는 여러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업무시간의 융통성이나 부부의 근무시간의 거리, 심리사회적 지원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Winfield(1985)는 부모역할 갈등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주말부부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원인에 의한 불가피한 것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주말부부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연구결과들도 발표되고 있다. 주말부부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가 주말이나 휴일에 만나서 생활하게 되므로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심리적인 거리감이나 친밀감 부족 등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숙(1999)의 연구결과 맞벌이 주말가족은 실제로 높은 수준의 결혼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최대 50점일 때 결혼만족도 평균이 40.73점으로 실제 응답자의 57.6%가 40점 이상의 결혼만족도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모든 문항에서 매우 만족하거나 대체로 만족한다고 대답하였을 때 가능한 점수이다.

부모의 비동거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되게, 옥경희(1999)는 실제로 맞벌이 주말가족에게 비동거 이후 떨어져서 생활하는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보고하는 비율은 단지 24%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달라진 점이 없거나 전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나타나는 결과와는 무관하게 부모들이 갖고 있는 역할기대와 자신의 역할수행을 비교하여 민감하고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남편의 경우 대부분 가사노동을 아내의 도움을 받거나 책임을 위임하는 반면,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는 기간동안 혼자 사는 남편들은 가사노동을 훈련하고 실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Gerstel & Gross, 1984; 채옥희, 1998)이며, 일주일 중 떨어져 있는 동안 가사노동의 책임이 각자에게 있으므로, 특히 남편들의 가사노동에의 참여나 시간은 동거하는 맞벌이 부부의 남편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채옥

희, 2002).

이기숙(1999)은 맞벌이 주말부부의 장점은 남편과 아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아내는 경제적 여유와 함께 개인의 자유시간을, 남편은 직업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맞벌이 주말부부의 불편한 점은 부부 모두 자녀양육과 교육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Gerstel & Gross(1984)은 맞벌이 주말부부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경력을 추구할 수 있고, 자신의 일에 좀 더 집중할 자유가 있는 반면, 단점은 부부가 일상생활을 나누어 할 기회가 줄어들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함께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기 쉽다는 것, 친구·친지와 접촉 기회가 줄어들어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장점과 단점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 배우자는 주중에 독신과 같은 생활을 하는 반면 다른 배우자는 편부 또는 편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으로써 한 배우자의 장점이 다른 배우자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고 하였다.

주말부부가족을 선택하는 경우 단점은 선택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있으며,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며, 장점은 직업적 성취나 자유시간의 확보 등이 비용과는 상반되게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용과 보상은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가 즉 주거주지를 어느 곳으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배우자간에 서로 다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주말부부가족의 문제 극복

주말부부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문직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처해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단적 노력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노력에 의한 능력 배양이나 경쟁력 확보와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 즉 강한 자아실현의 의지와 개인적 노력으로 때로는 슈퍼우먼식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쟁력을 유지,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사회문화 구조에 적응하려는 특징을 강하게 보임으로써 가정/사회의 양분법에 근거한 성별 역할에 관한 전통적 상징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혜정, 1985; 진수희, 1999).

조혜정(1985)은 구체적으로 남녀 역할에 있어서의 새로운 상징의 출현 가능성을 조사당시 전문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상당수의 전문직 여성들이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약간씩 모자라는' 느낌으로 살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그러나 1960년 전후에 태어나 급격한 경제성장기를 거치고 여성운동이 본격화된 시대에 대학을 다닌 여성들 가운데는 그 이전 세대의 일하는 여성들이 가진 '슈퍼우먼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고 있으며, 남성문화에 적응하기보다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진수희, 1999).

구조적·제도적인 것 이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이 문화적 요인이다.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며, 인간의 의식은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하는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직장/가정 양립의 문제 및 이중역할에 따른 갈등의 근본 원인은 공·사영역 구분에 따른 성역할 규범에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부장적 성역할 규범을 바꾸는 문화적 노력이 성공한다면 현재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통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진수희, 1999).

이와 같이 주말부부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취업 여성 자신의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변화시키고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나 가족 규범을 변화시키려는 문화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IV.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지 결정에 관한 조사 결과의 분석

1. 조사대상 사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편과 부인의 직업은 교수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자가 용이하게 접촉할 수 있는 주말부부들이 대부분 교직에 몸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맞벌이부부는 조사대상의 93.9%였으며, 주말부부 생활한 기간은 짧게는 1년부터 19년까지 다양하였으며, 대부분 처음에는 주말부부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일시적인 것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의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적으로 동일도시에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장기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가족수는 4명이었으며, 주중에 자녀를 누가 주로 양육하고 동거하는가에 대해 부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양육하는 경우가 23(69.7%)명이었으며, 남편이 주로 자녀를 돌보거나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는 10(30.3%)명이었다. 그러나 남편이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중 70%가 시부모나 친정부모와 동거하면서 자녀양육을 맡고 있었다. 막내자녀가 중학교 이상된 경우에는 남편이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가사는 파출부가 맡고 있었다. 전체 사례중 시부모나 친정부모와 동거하는

<표 1> 조사대상사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례 No.	성별	연령	남편의 직업	부인의 직업	주말부부 지속기간	가족수	주중자녀 주양육자	자녀의 연령	가사 및 육아 해결방식
1	여자	36	교수	교사	4년	4명	부인	8세, 11세	시아머니와 동거
2	여자	45	교수	교수	9년	4명	남편	6세, 8세	시부모님과 동거
3	여자	53	회사원	교수	19년	3명	남편	29세	자녀가 해결
4	남자	38	교수	교사	5년	4명	부인	5세, 9세	유모, 외가식구
5	여자	45	회계사	교수	19년	4명	남편	15세, 16세	파출부, 시누이, 율케
6	여자	43	교수	교수	9년	3명	부인	11세	어린이집, 종일반
7	여자	42	교수	강사	17년	4명	부인	12세, 15세	본인
8	여자	59	기업주	교사	13년	4명	부인	17세, 24세	남편은 자녀가 도와줌
9	여자	42	회사원	교수	10년	3명	부인	10세	파출부, 외조부모
10	여자	35	연구원	교수	2년	4명	남편	3세, 9세	시누이와 동거
11	여자	34	회사원	강사	6년	3명	부인	5세	친정부모와 동거
12	여자	38	의사	교수	7년	4명	남편	1세, 7세	시아머니동거, 어린이집
13	여자	41	교수	교수	12년	3명	부인	10세	파출부
14	여자	47	회사원	주부	11년	4명	부인	17세, 19세	본인
15	여자	41	사업	교수	2년	4명	부인	10세, 12세	친정부모의 도움
16	여자	33	사업	교수	2년	3명	남편	5세	친정어머니동거, 파출부
17	남자	46	교수	교사	9년	3명	부인	11세	시아머니와 동거
18	여자	34	교사	교사	3년	4명	부인	6세, 10세	어린이집
19	여자	37	회사원	교사	10년	3명	부인	10세	친정부모의 도움
20	여자	37	회사원	교수	7년	4명	남편	9세, 12세	시부모와 동거
21	남자	42	교수	교사	3년	4명	부인	12세, 15세	비상시 친지, 이웃도움
22	여자	38	교수	교수	1년	4명	부인	5세, 5세	파출부, 친정부모도움
23	여자	42	기업주	교수	12년	4명	남편	14세, 17세	파출부
24	여자	51	회사원	주부	2년	4명	부인	23세, 27세	파출부
25	여자	33	강사	교수	3년	3명	남편	4세	시부모와 동거
26	여자	38	교사	교사	3년	4명	부인	10세, 14세	학원, 공부방 선생님
27	여자	44	사업	교수	9년	3명	현재동거	16세	파출부
28	여자	38	의사	교사	2년	4명	현재동거	3세, 9세	파출부
29	여자	27	교수	강사	1년	2명		자녀없음	
30	여자	35	회사원	교수	9년	4명		5세, 6세	친정부모시누이
31	남자	45	교수	교사	5년	4명	현재동거	12세, 16세	파출부
32	여자	43	교수	교수	14년	3명	남편	13세	시부모와 동거
33	여자	34	교수	교사	2년	4명	부인	6세, 9세	시아머니와 동거

경우와 비상사나 필요할 경우 시가나 친정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는 18사례(54.5%)로,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공적인 기관이나 사회적 지원보다는 친족의 지원이 더 많음을 알 수 있고, 자녀가 중학생 이상 되는 경우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가사노동만을 파출부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조사대상 사례의 주거환경적 특성

주거환경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주거주지는 지역적으로 볼 때 서울이 15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30사례(90.0%)로 이는 아파트가 가사노동이 절감되고 주택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거공간의 규모는 최소 24평에서 58평까지 다양한데, 32평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구당 주중 평균 거주인수는 평균 3.06명으로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소유는 자가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녀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자가를 마련하여 주거주지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거주지의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90.0%로 역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은 모두 시부모나 친정부모의 소유인 주택에 함께 기거하는 경우였다. 이는 혼자 기거하게 되는 경우 단독주택보다는 규모가 작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주택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거주지는 혼자 기거하게 되므로 주거공간이 비교적 좁다. 공간의 규모는 최소 방 1개에서부터 28평까지 다양하다. 주택소유상태는 임대아파트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전세가 많았으며, 자가소유인 경우가 7사례, 관사가 4사례로 부거주지는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가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족의 원거주지였던 것이 자녀양육상 주거주지를 옮기게 된 경우나 잦은 이사를 싫어하는 경우 지방에서는 주택가격이 저렴하므로 자기소유의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말부부가족의 주거주지 결정시 고려한 사항

주말부부가족이 주거주지를 결정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자녀를 위해 저녁 늦은 시간이나 비상시에 시

<표 2> 조사대상사례의 주거환경적 특성

사례 No.	주거주지						부거주지				
	지역	주택유형	규모	소유여부	거주가족수	동거인	지역	주택유형	규모	소유여부	거주가족수
1	인천	아파트	32평	자가	4명	시아머니	광주	아파트	방1개	관사	1명
2	서울	단독주택	43평	시가소유	5명	시부모	전주	아파트	15평	자가	1명
3	성남	아파트	32평	자가	2명		전주	아파트	15평	임대	1명
4	서울	아파트	23평	자가	4명	유모	전주	단독주택	방1개	시가소유	친부모동거
5	서울	아파트	58평	자가	3명		전주	아파트	24평	임대	1명
6	전주	아파트	32평	자가	2명		수원	아파트	25평	자가	1명
7	서울	아파트	47평	자가	3명		전주	아파트	15평	임대	1명
8	서울	아파트	32평	자가	2명		여수	아파트	24평	자가	2명
9	전주	아파트	32평	자가	2명		서울	아파트	방1개	시가소유	1명
10	서울	아파트	32평	자가	4명	시누이	전주	아파트	15평	임대	1명
11	광주	단독주택	45평	친정소유	6명	친정가족	서울	아파트	13평	임대	후배동거
12	서울	아파트	24평	전세	4명	시아머니	울산	아파트	24평	전세	1명
13	광주	아파트	32평	자가	2명		천안	아파트	15평	임대	1명
14	성남	아파트	46평	자가	3명		충주	아파트	24평	전세	1명
15	전주	아파트	23평	전세	3명		서울	아파트	25평	자가	1명
16	서울	아파트	29평	친정소유	3명	친정어머니	대구	아파트	28평	시가소유	시부모동거
17	대구	아파트	32평	자가	2명		전주	아파트	13평	임대	1명
18	인천	아파트	24평	자가	3명		안성	아파트	방1개	관사	1명
19	강릉	아파트	24평	자가	2명		천안	아파트	16평	전세	1명
20	서울	단독주택	50평	시가소유	5명	시부모	광주	아파트	16평	자가	1명
21	서울	아파트	32평	자가	3명		전주	아파트	13평	전세	1명
22	천안	아파트	38평	자가	3명		서울	아파트	18평	전세	1명
23	일산	아파트	47평	전세	3명		제주	아파트	16평	자가	1명
24	서울	아파트	48평	자가	3명		울산	아파트	24평	관사	1명
25	서울	아파트	28평	시가소유	4명	시부모	광주	아파트	13평	임대	1명
26	인천	아파트	32평	자가	3명		여주	아파트	24평	전세	1명
27	대구	아파트	48평	자가	2명		서울	아파트	17평	전세	1명
28	울산	아파트	45평	자가	3명		서울	아파트	24평	자가	1명
29	서울	아파트	32평	전세	1명		전주	아파트	17평	전세	1명
30	서울	아파트	24평	자가	1명	주말에만	전주	단독주택	방1개	친정소유	친부모동거
31	서울	아파트	24평	자가	3명		전주	단독주택	방1개	누이소유	누이동거
32	춘천	아파트	32평	자가	4명	시부모	광주	아파트	13평	임대	1명
33	청주	아파트	28평	전세	4명	시아머니	광주	아파트	방1개	사택	1명

부모, 친정부모, 시누이, 올케, 친정형제 등 친척의 도움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주거주지를 결정하고자 했던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공적 기관에서의 탁아나 파출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직장에서의 저녁 늦은 시간에 귀가해야 한다면, 출장을 가는 경우에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친척이나 친지의 거주지에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부부중 직장에서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주말에 이동이 용이하므로 주거주지는 근무시간이 많거나 시간제약이 많은 사람의 지역으로 정하고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시부모, 친정부모, 시누이와 동거하면서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주거주지로 결정하는 경우였다. 반면 전혀 낯선 지역이지만 엄마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공적인 기관에 탁아를 위탁하거나 파출부를 부르더라도 주거주지를 엄마의 직장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거나, 자녀의 교육환경이 좋기 때문에 주거주지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연구문제 1번 주말부부가족의 주거주지(住居地) 결정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주거주지 결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녀들로서 자녀의 양육이나 자녀의 교육적 환경을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30사례)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연령(특히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 따라 주거주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았다(표 3참조).

<표 3> 막내 자녀 연령과 주거주지 결정시 중요 결정요인

막내 자녀 연령	주거주지 결정시 중요 결정요인
막내자녀가 미취학아동기인 8세 이하의 경우	주양육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 자녀의 양육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지역
막내자녀가 초등학교 재학중(8세-14세 이하)인 경우	자녀가 하교후나 양육자가 늦을 경우에 적절한 보호를 받을수 있는 지역(친척, 친지의 도움)
막내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경우	자녀의 교육적 환경이 좋은 지역 학군이 우수한 지역
막내자녀가 대학생 이상인 경우	생활이 편리한 지역

막내자녀의 연령이 8세 이하인 미취학아동기인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녀의 주양육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주거주지로 결정하였으며, 따라서 시부모나 친정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시가나 친정이 주거주지로 결정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부모나 친정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까이 있어 비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주거주지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순경(1999)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있는 기혼 사무직 여성은 많은 경우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아이를 맡아 기른다. 특히 3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를 친정부모에게 맡기고 주말에 데리고 와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맡기고 다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사시는 이웃에 주거지를 택한다. 이런 대안이 없는 사무직 여성의 경우는 양육 부담이 흔히

이직을 택하도록 한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주거주지 결정시 아이를 어디에서 기르고 주로 교육시켜야 하는 것에 대한 초기 걱정이 어려웠다. 특히 나의 직장이 지방이었으므로 서울에서 아이를 데려올 때 지방으로 내려온 아이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에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나 아이를 지방으로 데리고 왔다.”(교수, 42)

“혼자 된 시누이가 한 집에 거거하면서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남편과 자녀등을 남겨두고, 혼자 지방에 내려가서 생활하고 있지요.”(교수, 35)

4.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유형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유형은 크게 4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유형과 특성을 정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유형 1은 남편의유형으로 부인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남편이 주말마다 가족을 보기 위해 이동하는 유형으로 조사대상중 20사례로 가장 많다. 이 유형은 남편의 직장이 주당 근무일수가 적거나 시간사용의 융통성이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부인의 직장위치가 자녀양육에 주변친척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는 자녀는 꼭 엄마가 돌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선택하게 되는 유형이다.

유형 2는 부인의유형으로 남편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부인이 주말마다 가족을 보기 위해 이동하는 유형인데 이 경우 자녀가 어릴 경우 시부모나 친정부모와 동거하여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맡아줄 분이 있는 경우이거나, 부인의 직장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특히 방학이 있는 직업인 경우 실제 주중에 떨어져서 생활하는 시간이 다른 경우보다 짧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본 조사에서는 10개 사례가 이 유형에 속한다. 이기숙(1999)의 연구에서 맞벌이 주말부부중 14.5%가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보다 조금 비율이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4>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유형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유형	특 성	사례	
유형 1 ; 남편의유형	부인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남편이 주말마다 가족을 보기 위해 이동하는 유형	남편의 직장생활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부인이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는 엄마가 돌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때문에	20
유형 2 ; 부인의유형	남편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부인이 주말마다 가족을 보기 위해 이동하는 유형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맡아주시므로 부인의 직장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교직은 방학)	10
유형 3 ; 모자의유형	주말마다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남편에게 이동하는 유형	부인의 직장생활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2
유형 4 ; 가족분산형	가족이 3곳 이상 분산되어 생활하는 유형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자녀를 분산시켜 양육 부부의 직장이 거리가 너무 멀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자녀를 맡기고, 주말에 만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1

유형 3은 모자이동형으로 주중에는 부인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주말마다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남편에게 이동하는 유형이며, 부인의 직장생활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녀의 나이가 어려 학교에 다니기 이전에만 가능한 과도기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 4는 가족분산형으로 가족이 3곳 이상 분산되어 생활하는 유형으로 자녀를 한 곳에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자녀를 분산시켜 양육하거나, 부부의 직장이 거리가 너무 멀거나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자녀를 맡기고, 주말에 만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부부가 각자 1인가족으로 생활하고 자녀는 시부모나 친정부모에게 맡기고 주말에 시댁이나 친정에서 함께 만나는 가족으로 장기간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유형으로 이사를 하거나 자녀들이 성장하면 대안을 찾아야 할 유형이다. 유형 3과 4는 사례수는 적으나 주말부부가족중 가장 힘들고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선택의 결과라기 보다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겨난 유형으로 생각된다. 과거에 이런 유형을 경험했던 사례를 통해 과도기적인 유형임을 증명해 줄 수 있다.

“우리 부부도 예전에 애가 하나였을 때는 주중에 애를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와 친정부모에게 맡기고, 주말에는 다시 애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는 생활을 했으나, 애가 둘이 되면서 도저히 이동할 수 없게 되어, 서울에 애들을 돌볼 수 있는 입주가정부를 득이고, 주중에는 남편이 애들을 생활하고, 주말에는 내가 애들을 돌보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아따 애가 하나였더라도 육체적으로 힘들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며, 특히 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느 한 곳에 정착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교수, 45)

“우리 부부는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직장을 구하게 되어 나와 남편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각각 흩어져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주중에는 자녀는 주양육자인 시부모님께 맡기고, 각자 지방에서 생활하다, 교통이 편리하고, 원래 생활근거지였던 서울로 모여 주말을 보내는 생활을 했으나, 생활비도 너무 많이 들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게 되어, 시부모님이 남편의 직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여, 주중에는 남편과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주말에는 내가 가족을 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교수, 43)

5.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유형에 따른 심리적 비용(cost)

주말부부가족으로 생활할 때 치루어야 되는 심리적 비용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표 5>와 같다.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양육이 심리적·육체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점과 가족이 분산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비와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의 소모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시간, 에너지, 비용이 한곳에서 생활하는 가족에 비해 부담이 많다는 것이다.

1) 자녀양육의 어려움

유형 1에서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린 엄마의 경우 특히 부담이 되는 비용으로 주중에 자녀를 혼자 돌보아야 하므로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인데 특히 저녁 늦은 시간이나 출장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최근 학교장 재량에 의한 공휴일에는 자녀를 적당히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게 된다. 남편의 경우는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가 적어 자녀와의 관계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요즘 초등학교는 예전과 달리 자유수업일이나 학교장 재량에 의해 공휴일이 아닌데도 수업이 없는 날이 많은데 그때마다 교편이네요. 처음에는 할 수 없이 애를 데리고 출근을 했지만 그것도 한두번이지 애는 애대로 신신해하고, 학생들이나 동료교수들에게 면목이 없고, 그렇다고 애를 혼자 두고 출근할 수도 없고, 딱딱이 부부의 자녀를 고려해 주었으면...”(교수, 43)

“전공의 특성상 야간수업이나 지방출장이 잦은데 그때마다 한바탕 날기가 나요. 애들을 보아줄 적당한 탁아소나 사육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집근처에 있는 사설놀이방에 보내고 있어요. 그곳은 우리 애와 비슷한 애를 기르는 전업주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가끔씩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맡겨도 좋다고 했거든요...”(교수, 41)

2) 자녀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죄책감

유형 2의 부인은 주중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것, 남편의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경우 자녀가 혼자 있게 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느낀다. 다른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학교에서 부모의 출석을 요구할 때 참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시 보조로 활동하도록 요구한다든가, 주중에 하는 학부모회의 등에 참석이 불가능하므로 애들에게 미안하다는 것이다.

“주중에 어린 아이를 떼어 놓고 지방에서 생활하므로 항상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무언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자책에 빠져 등 때가 있다. 특히 자녀가 아플때는 심한 죄책감...”(교수, 33)

“애들 운동회나 소풍, 학부모회의 등에 참석할 수 없어 애들에게 미안하고, 특히 이런 일로 담임교사에게 심하게 꾸중을 듣는다거나, 벌로 청소를 하게 될 때는 업따로서 너무 미안함을 표현할 수 없다.”(교수, 45)

3) 행정적인 문제

자녀의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에 주민등록상 아빠가 없거나 엄마가 없는 비정상가족으로 보여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행정적인 필요로 부부임을 증명해야 되는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나 추가적인 증명서(주민등록으로는 부부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호적등본이 필요하다든가)를 요구하게 되어 번거롭게 때로는 난처한 경우도 있다.

“주면등록만 같이 되어 있어도 확인가능한 건데 어찌고 저찌고 구청 직원이 안타까운 듯 쳐다보았다. 의료보험도 나는 따로 있고, 증명할 기이 딱딱할 뿐이었다. 직장 때문에 주면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부층 많이 보아 왔는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도 그 주면등록이 문제가 되어 호적등본을 같이 들고가야 했다. 뭐가 그리 복잡할지. 아이는 아빠와 주면등록이 되어 있고, 아빠 의료보험증에 함께 몰려 있고, 내겐 빠져 있다.”(교수, 42)

4) 나를 위해 투자할 시간 부족

유형 1의 부인중 특히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 경우 항상 자녀와 함께 생활해야 하므로 자유시간이 전혀 없어, 직업적 성취나 개인적 개발, 취미생활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유형2의 부인의 경우 주중에 자녀를 돌보지 못한 것 때문에 주말에는 도맡아 돌보아야 되고, 밀린 가사노동도 처리해야 되므로 친구나 친지를 만날 시간이 없다.

5) 시부모와 며느리, 친정부모와 사위간의 갈등 발생

유형2의 경우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시부모나 친정부모는 육체적·심리적 부담으로 힘들게 되므로 이 모든 것이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며느리가 직업을 가지고 지방에 근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므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저희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직장을 나가기 위해 주말부부가 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시며 항상 자기 아들이 결혼을 잘못했으며, 며느리가 손자녀에게 소홀하다고 생각하십니다.”(교수, 37)

“친정어머님이 저희 아이를 양육해주시기 때문에 주중에 남편이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생활했는데 깔끔한 성격의 친정어머니와 털털한 남편은 서로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제가 눈치가 보였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대도 중재역할을 했는데 주중에는 그럭수 없어서...”(교수, 33)

5) 남편에게 미안

유형 2의 부인은 자녀양육을 남편에게 맡겨 미안하고, 다른 부인들처럼 항상 식사를 준비해주고, 아침에 출근준비를 못해주므로 미안함을 느낀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집에 돌아오는 시각이 11시, 12시 정도에 들어오므로 남편이 저녁에 일찍 들어올 경우, 혼자 저녁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통스러워할 수 대신날 저녁을 챙겨주거나, 다음날 국을 끓여주었으면 하지만 혼자 해결하는 것이 싫은 눈치이다.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교수, 33)

6) 피곤함으로 인한 다툼

유형 1의 부인에게서 나타나는 비용으로 자녀가 어린 경우, 끊임없이 자녀를 돌보아야 하므로, 주중에 혼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자녀에게 역매이는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고, 지속적인 피로로 인해, 주말에 남편이 왔을 때 사소한 문제에도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유형2의 부인의 경우 주중에 자녀를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지방에서부터 이동으로 인해 심리적,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주말에는 애를 도맡아 돌보아야 되므로 주말이 더 피곤하므로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딱내가 어리고 주중에 혼자서 돌보게 되므로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자녀에게 역매이는 생활을 하다보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고, 지속적인 피로로 인해, 사소한 어려움에도 남편과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다”(교수, 45)

7) 매식이 잦거나 저녁시간에 허전

유형 1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남편은 식사준비가 귀찮거나 취사시설이 마땅치 않아 매식회수가 증가되기도 하고, 저녁시간에 혼자 문 열고 들어갈 때 허전함을 느낀다.

“저녁시간에 빈 아파트에 혼자 문 열고 들어갈때가 가장 허전하고 가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죠... 특히 밤 학이 끝나고 내려오면 더 심한데요.... 혼자 밤해먹기도 싫고, 혼자 먹는 것도 청승맞은 것 같아 되도록 밖에서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교수, 46)

“제 남편은 관사에 기거하는데 방 1개를 사용할 수 있을뿐 취사시설이 마땅치 않아 저녁을 밖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다고 해요. 사먹는 것도 하루이특이지...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또 저녁시간에 봉꺼진 방에 들어갈 때가 허전하다고 하던데요...”(교수, 34)

이외에 가족은 함께 기거해야 한다든가, 어린이는 엄마가 1차적인 양육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어려움과 비용을 지불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것을 그 만듦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 것은 이러한 비용을 치루는 것에 대하여 경제적인 여유이외에 심리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6. 주말부부의 거주유형에 따른 심리적 보상(reward)

주말부부가족의 주거지 선택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점인 심리적 보상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표 5>와 같다.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인 보상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고, 직업적 성취가 높고, 부부간의 갈등이나 다툼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어릴 경우 한쪽 배우자의 보상은 상대 배우자의 비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유형에 따른 비용

거주유형	비 용
유형1: 남편의 유형	자녀를 혼자 돌보아야 하므로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인).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특히 저녁 늦은 시간이 나 출장이 필요한 경우, 공휴일이 아닌데 학교가 쉬는 경우)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없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다(부인).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가 적다.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부인). 매식이 잦아지거나 저녁시간에 허전하다(남편)
유형2: 부인의 유형	자녀양육의 심리적 부담과 죄책감을 느낀다(부인).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느낀다(부인). 시부모와 며느리, 친정부모와 사위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학교에서 부모의 출석을 요구할 때 참석할 수 없다.
유형3: 모자 이동형	이동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 에너지, 비용의 소모가 많다. 자녀가 어릴 경우에만 가능하다.
유형4: 가족 분산형	생활하는 곳이 많아 생활비, 교통비의 지출이 많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족의 거주공간이 없다.

1) 자아실현

일하는 기혼 여성이 가장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가 직장과 가정의 양립 문제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여성의 직장위치가 남편과 달라 주중에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해야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전문직의 경우에는 일과 가정이 선택의 문제라기 보다는 어떻게 두 영역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공적 영역에서의 성취 동기가 워낙 강하고 취업의 주된 사유가 경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진수희, 1999). 특히 결혼과 출산, 육아를 위해 잠시 일을 접었던 여성일수록 자신의 일이 아닌 전업주부의 생활에 대해서 더욱 부정적이다.

“경춘초 남편의 직장을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이 아니므로 친지가 전혀 없어 쓸쓸하였으며, 나 혼자 낙오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리감도 들었어요. 그때 마친 서울에서 직장이 생겨 주말부부가 되기 시작했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강사, 42세)

“자녀양육이나 직장에서 어려울 때 가쁜 직장을 가진 것에 대해 갈등을 하기도 하지요.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지않 그 때가 지나면 그래도 직장을 가지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둬 생각은 없지요. 가쁜 애들에게 미안하지않...”(교사, 38; 교수, 45)

2) 집안대소사 참여의무 일부 면제

유형 1의 부인의 경우 주중에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일도 수행하므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시댁이나 친정에서 이해

하므로 집안대소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중에 자녀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시댁에 대한 부담과 며느리로서의 역할과 의무에서 상당히 면책사유가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으로 꼽을 수 있다.”(교수, 42)

<표 6>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유형에 따른 보상

거주유형	보 상
유형1: 남편의유형	시간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남편). 자유시간의 활용(남편) 직장에 몰두할 수 있다(남편). 집안의 대소사 참여의무 일부 면제(부인) 부부간 의견충돌 감소 저녁시간을 충분히 활용(효과적인 수업준비와 학위논문 준비 가능)(부인)
유형2: 부인의유형	남편의 가족 특히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함 직장에 충실하고, 연구활동에 도움이 됨(부인) 부부간 의견충돌 감소 자녀의 독립성 발달
유형3: 모자이동형	부부간 의견충돌 감소
유형4: 가족분산형	직장에 몰두할 수 있다(남편, 부인) 부부간 의견충돌 감소

3) 직업에 충실

전문직 여성들은 가정과 일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주된 방법으로 두 영역을 철저히 분리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진수희, 1999). 유형 2의 부인의 경우 주중시간을 가정과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직업적 성취를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직업에 충실할 수 있고, 개인적 개발도 가능하다.

“직업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의 확대됨으로써 특히 주중에 가족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자잘한 가사노동 등에서 해방되어 완전히 연구와 학생지도에 몰두할 수 있으므로 직업적 성취도가 높다.”(교수, 59)

“한곳에서 몇번이 부부로 활동하는 교수보다 가정일에 소모하는 시간이 적은 이점이 있어서, 주중에는 직업에 충실할 수 있어 더 많은 연구업적과 학문적인 성취가 가능했고, 수업준비도 누구보다도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주말부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교수, 45)”

4) 부부갈등의 정도가 낮고, 가족이 화목하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틀리게 맞벌이 주말부부들이 동거 맞벌이 부부에 비해 역할 갈등을 훨씬 적게 받고 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Bunker et al., 1992). 주말에만 가족이 모임으로 사소한 문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므로 부부싸움할 기회가 줄어들고, 평상시에는 전화나 이메일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 동거 맞벌이부부보다 더 많은 의사소통

을 하게 된다.

“주말에만 부부가 만날 수 있으므로 사소한 갈등으로 인한 감정적 소모가 없다는 점은 아주 좋은 점이다.”(교수, 42)

“주중에 헤어져 생활하므로 감정적으로 부딪힐 때 안중 작용을 해줄 수 있는 격려의 시간이 있어 좋다.”(강사, 42)

“주중에 나 혼자서 직장과 아이에게 시달려서 애쓴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주말에는 남편이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 해주는 등 배려가 있어서 오히려 한목한 가족을 유지하는 것 같다.”(교사, 41)

“전혀나 이제야로 대화를 하게 되어 오히려 함께 생활할 때 보다 더 많은 의견교환을 할 수 있어 부부간 의견충동이 감소되고, 예전의 연애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좋다.”(교사, 36)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기쁨이 된 것 같다.”(교수, 45)

“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한 곳에 모여 가족이 생활하게 되면서 부모나 자녀가 함께 어울릴 수 있어 처음에는 좋았으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부부 모두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없어지고, 가족에 역매이는 생활이 되면서 자녀들에게 부부간의 의견충동을 종종 보여주게 되는 등 좋지 않은 점도 있다.”(교사, 45)

5) 자녀의 독립성 발달

유형 2의 경우 항상 엄마가 옆에서 챙겨주는 아이들에 비해 일찍 자신의 일들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게 된다.

“엄마만 떨어져 생활하면서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과제를 챙기는 등 인적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고, 동생도 잘 돌보아 주어 이제는 또래의 어떤 애들보다도 독립적이며 책임감 있게 성장해서 흐뭇하다.”(교수, 53)

6) 시간 활용이 잘됨

유형1의 부인의 경우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므로 자녀양육으로 인해 시간적, 심리적 비용이 큰데 반해, 배우자인 남편의 경우는 주중에는 개인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게 되며,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 자신을 위해 시간을 비교적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이는 주말부부로 생활하다 최근 가족이 모여 생활하게 된 A씨의 경우,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생활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남편과 함께 생활하게 된 점은 좋지만 전반적으로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여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는 불평을 하는 것으로 보아, 주말부부로 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보상이 주중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유형 1의 부인도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남편이 없는 주중의 저녁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좋다고 한다.

“주중에 가족에 매이지 않고, 자유시간이 확보되므로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으며, 수업 준비나 논문 준비를 위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개인의 생활이 좀 더 충실했다고 생각한다.”(교수, 46)

7. 주말부부의 심리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1)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의 확충과 질적인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모든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사항이지만 특히 유형 1의 가족에게 필수적인 해결책이기도 하다.

모든 주말부부들의 가장 심각하며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다. 점차 사회적으로 여성취업이 대세로 자리 잡아 가지만, 육아는 개별 가족에게 그대로 맡겨져 있다. 아이는 반드시 엄마가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실은 취업주부에게는 육아를 제대로 못할 바에는 일을 그만 두라고 하고, 전업주부들에게는 원하던 원하지 않은 24시간 가경만을 지키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의식 속에서 여성의 취업이 제한받게 되며, 주말부부의 경우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거나 죄의식을 느끼게 만든다. 이의 해결방안은 아이들은 엄마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과도 어울려 자라는데 당연하다는 생각을 모든 구성원들이 갖게 되고, 사회가 육아를 함께 책임짐으로써 전업주부의 피해 의식도, 취업주부의 죄책감도 사라질 것이며, 여성의 취업이 자유로워지고, 여성들의 삶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 2002).

1990년대에 증가한 맞벌이 가족이 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해나 가는데 정부나 기업차원에서 함께 해결하려는 정책적 실현이 부족하고, 가족 및 친족 내부에서의 육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 등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모색된 대안중 하나가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다(류경희·김순옥, 2001). 즉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자녀양육을 가족간에 함께 하고자 하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가족 안에서의 기본적 연대감, 공동체적 사랑, 이웃간의 유대를 회복하며 개별 핵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하나의 대안적 가족형태인데(류경희, 김순옥, 2000), 주변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한번 시도해 볼만한 대안으로 생각된다.

일하는 여성 모두의 애로인 가사와 육아 문제의 해결을 지금처럼 개인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진수희, 1999). 가사와 육아의 사회화는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중역할에 다른 고통을 덜어 주고, 또 다른 고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생각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경우 방학이나 공휴일도 아닌데 학교장 재량에 의해 등교하지 않아도 되는 날에는 학교에서 맞벌이부부의 자녀를 위한 조치를 준비해주면 좋겠다. 특히 유형

1의 남편외유형의 경우 필요하며,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예정에 없던 일이라 직장을 가진 부모가 대처하기 어렵다.

3) 자녀의 학교에서 학부모회의를 평일 근무시간에만 하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참석할 수 없게 되므로 외국처럼 학부모회의를 근무시간이후나 주말에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여건상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지 않아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4) 현재 국공립학교교사인 경우 최초의 임용지에서 타시도로의 전출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부부가 떨어져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전출의 폭을 확대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주말부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부부교사 중 한 쪽이 다른 시도에서 근무중인 주말부부 교사들의 경우 서울로 진입하게 해 주는 등 주말부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취한 바 있으나(동아일보, 1996; 한국일보, 2000), 서울이외의 도시와 타시도에 근무하는 부부교사의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5) 제도적인 개선보다 더 힘든 것이 기존의 가족문화에 의한 사회적 인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주부가 자녀와 남편을 주중에 돌보지 못하는 경우 시댁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많이 주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말부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특히 부인의유형인 경우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라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와 더불어 수많은 여성들이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면서 특히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의 수행과 자녀의 주양육자 역할에 따른 피로의 누적과 다양한 역할 요구에 필요한 시간, 노력, 에너지 고갈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맞벌이부부중 직업상의 이유로 가족이 불가피하게 별거해서 살아야 하고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주말부부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말부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도 없고, 이들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말부부가족의 주거지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러한 거주유형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유형에 따른 심리적 비용과 보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말부부는 산업사회 초기에는 남편의 직장이동이나 해외 취업 등과 같이 경제적인 원인으로 남편외유형이 보편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기혼여성이 자아실현과 직업적 성취를 위한 취업이 증가하면서 부부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자녀양육에 유리한 지역을 주거지로서 선택하고 부부중 한쪽이 이동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2. 주말부부가족이 주거지를 결정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부부중 누가 직장에서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가, 자녀의 교육환경이 좋은가 등이다.

3. 주말부부의 거주유형은 크게 4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은 남편외유형, 다음으로는 부인의유형이며, 모자이동형이나 가족분산형은 과도기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중 남편외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4. 주말부부가족의 공통적인 심리적 비용으로는 자녀양육이 심리적, 육체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점과 가족이 분산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비와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 시간, 에너지의 소모가 많다는 점이다. 남편외유형의 경우 부인이 직장과 자녀 돌보기를 모두 책임져야 하므로 심리적 비용이 더 크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 어렵다. 부인의유형의 경우는 엄마가 주말에만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경우 주중에 자녀를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주말에는 도맡아 돌보아야 되므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남편에게도 항상 미안함을 느낀다. 시부모는 며느리의 취업으로 주말부부가 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항상 며느리가 자기 아들과 손자녀에게 소홀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문제로는 학교에서 부모의 출석을 요구할 때 참석할 수 없으므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렇게 많은 심리적 비용을 치루면서도 주말부부를 중시할 의사가 이 부부들에게는 없다는 것이며, 이는 주말부부라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풍요 이상으로 이득이 되는 심리적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주말부부가족의 공통적인 심리적 보상으로는 자유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직장에 몰두할 수 있으며,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부부간의 의견충돌이 감소되고 가족이 화목해진 다.

6. 주말부부들의 공통적인 문제인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육아를 개별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회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미취학아동기의 자녀를 가진 남편외유형의 경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의 확충과 질적인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방학이나 공휴일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의해 등교하지 않아도 되는 날에는 학교에서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한 조처를 준비해주었으면 좋겠다. 학부모회의를 평일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이후나 주말에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국공립학교교사의 타시도로의 전출의 폭을 확대시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인의유형의 주말부부가족에게는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존의 사회적 인식이나 문화를 개선하려는 여성 자신의 의식이다. 과거와 같은 수퍼우먼식의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어려움과 정당한 평가, 사회적 역할과 기여도에 대해 여성개개인과 여성단체, 매스컴 등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주말부부가족에 대한 연구의 시초이며, 통계적인 자료나 기존문헌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기초적인 연구로서 수행된 것이므로 주말부부가족에 대한 아주 부분적인 연구(조사대상의 직업이 다양하지 못함)만이 수행된 결과이므로 모든 주말부부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이 연구로 인해 주말부부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여성의 취업과 함께 증가할 주말부부가족의 주거지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 주말부부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주말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이들 가족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일주일에 4-5일씩 떨어져서 생활하는 주말부부가족과 1년 이상 장기간 별거하게 되는 취업으로 인한 장기 해외거주나 자녀교육을 위한 기러기 아빠 등의 경우와는 구분되어 평가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말부부가족의 문제해결을 개별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증가될 수 있으며, 더 많은 여성인력의 사회적 기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3년 1월 15일

□ 심사일 : 2003년 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2월 27일

【참 고 문 헌】

21세기주부분문화연구소(2002). www.jubu21.or.kr
 공세권(1998). 사회변동과 가족의 분화, 1998년도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1-11.
 판인숙(1989). 도시가구의 주거이동 유형이 가정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27-144.
 김은경(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25-43.

김태현·박숙자(1992). 한국의 비농거가족연구. *가족학논집*. 4, 45-74.
 류경희·김순옥(2000).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대안적 가족형태로서의 가능성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19-151.
 류경희·김순옥(2001).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한 이웃과 가족 관계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9(11), 193-208.
 옥경희(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부모역할 갈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45-66.
 유계숙·유영주(200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5), 79-94.
 이기숙(1999). 맞벌이 주말가족의 성격분석을 위한 시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1-23.
 정현숙(1997). 맞벌이가족의 부모역할 긴장과 부부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151-162.
 조순경(1999). 사무직 여성의 일과 삶의 질. *여성의 일과 삶의 질*. 미래인력연구소. 111-152.
 조혜정(1985). 전문직 여성. *한국여성과 일*.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편.
 진수희(1999). 전문직 여성의 일과 삶의 질. *여성의 일과 삶의 질*. 미래인력연구소. 15-68.
 채옥희(1998). Commuter Marriage 가정경영 실태와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6(9), 153-166.
 채옥희(2002). Commuter Marriage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15-225.
 통계청(2001). 경제활동인구조사. 180-181.
 Bunker, B.B., Zubek, J.M., Vanderslice, V.J., & Rice, R.W.(1992). Quality of life in dual-career families; Commuting versus single-residence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99-407.
 Gerstel, N.R., & Gross, H.(1984). *Commuter Marriage*. NY: The Guildford Press.
 http://kotsh11.hihome.com/homans.htm
 Kim Song-Chul(2001). Weekend couples among Korean professionals: An Ethnography of living apart on weekdays. *Korea Jo-urnal*. 41(4), winter, 28-47.
 Winfield, F.E.(1985). *Commuter Marriage : Living Together, Apart*. NY. Columbia University Press.